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지역 일자리 허브로 우뚝

일자리 걱정없는 고창을 위해 고창군로컬잡센터(센터장 양치영)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창군 지원, 전북산학융합원이 사업주관을 맡아 올해로 6년차가 된 고창군로컬잡센터는 단순 고용서비스 제공을 넘어 최일선에서 고창군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 주

▲군민 맞춤형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활력'

고창군로컬잡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 고창군 통합 취업인원 600여명을 달성, 고창군일자리센터와 상생해 많은 일자리창출 실적을 거뒀다.

고창군로컬잡센터 운영의 핵심은 '현장밀착형'이다. 관내 주요시설에서 어디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자리 소식지' 발행을 비롯해 전통시장, 문화터미널 등에 구인·구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로 고창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모양축제 등에서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부스로 센터를 알리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직자와 관련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고 있다. '함께가는 동행면접'의 경우 교통편을 찾기 어렵거나 낯선 면접장에 홀로 참석하기 부담이 되는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면접수당 지원사업(1인 2회 최대 10만원) 등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힘찬 응원이 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온라인 교육부터 채용연계까지 지원하는 '좋은 인재 양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창군 풍요롭고 찬란한 일자리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 당시 현장면접관, 채용설명관, 홍보관 총 40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해 현장면접 199건, 채용설명 및 상담 359건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도시 유류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 도농이 상생하는 고창

고창군로컬잡센터는 2022년부터 농가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가 일자리 연계 4,711건을 달성했으며, 이듬해 2023년도에는 1만741건으로 전년도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일손이 필요한 고창군 농가에 인건 도시인력 연계와 함께 간식비, 중식비, 농가축진수



지역 통합 취업인원 600여명 달성, 많은 일자리 창출 실적 거둬 '현장밀착형', 센터 운영 핵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추진 도시 유류 인력 일손부족 농가와 연계... 작년 1만741건 달성 창업지원사업 성과... 재도약 기업 지원 지속가능 고용창출 도모



- ①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
- ②고인돌 일자리 창출단 간담회
- ③로컬JOB센터 운영위원회
- ④농가 현장 점검
- ⑤농활원정대 활동
- ⑥수박축제서 홍보부스 운영

▲내 일을 꽃피우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고 제2의 인생직장으로 올해 2월에 취임한 양치영 센터장을 필두로 더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운영 고용서비스(동행면접, 일자리소식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와 구직자 대상 무료 교육 제공 사업, 면접수당, 문화의 날 등 군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을 고도화한다.

양치영 고창군로컬잡센터장은 "고창군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